

벼랑 끝 건설사에 8조원 푼다

유동화증권 발행·브릿지론 부활·PF 부실채권 매입 등 지원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브릿지론 부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뼈대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CBO 발행 규모를 1조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다음 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액을 아직 갚지 못해도 신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 500억원, 중견 건설사 1000억원이다.

2008년과 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브릿지론 보증은 2년 만에 부활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브릿지론 보증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한다. 공공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공급 규모는 약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건설사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2조원의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사들인다.

정상화뱅크와 별도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1조 7000억원 규모의 PF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 지원제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도입돼 5차례 연장됐다. 패스트트랙 적용 건설사에는 보증비율이 40%에서 65%로 높아진다. 지원 예상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작 필요한 대책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라고 호소했다.

박홍순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위험 변수가 엄청나다"면서 "미분양이나 입주 갈등이 불거진 부실장후 사업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잠재 부실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광주은행, 육군 31사단에 위문금 천만원

KJB광주은행 송기진(사진 왼쪽) 은행장은 13일 오후 지역 향토 부대인 보병 제31사단(사단장 고성균)을 방문해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여수엑스포 성공개회를 위해 고생한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보병 제31사단 장병들은 무더위 속에서 93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린 여수엑스포의 성공개회를 위해 매일 경비업무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등을 충실히 수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기진 행장은 "세계인들의 축제인 여수엑스포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지역 장병 여러분의 노고와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을지훈련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부탁하고 광주은행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도 약속했다. 고성균 보병 제31사단 사단장은 "여수엑스포 공식후원은행인 광

주은행이 잊지 않고 장병들을 방문 격려해 감사하다"며 공생경영을 화두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기진 은행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계 이자부담 커졌다

물가 하락폭 더 커 실질금리 연 1.84%

은행권이 앓다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가 변동폭을 뺀 가계 실질 이자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양도성에금증서(CD,91일물)의 실질금리는 연 1.84%였다. 2008년 1월(1.91%) 이후 4년 반 만에 최대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제 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질금리가 증가하면 결국 물가를 고려한 이자 부담은 커진다.

7월 CD 금리 평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연 3.34%를 기록했다. 그동안 제자리를 맴돌다 '금리 조작 논란' 이후 뚝 떨어졌다.

그러나 물가는 더 내려갔다. 7월 물가상승률은 1.5% (전년동기대비)로 12년만에 최저였다. 7월 CD 금리에 물가변동분 1.5%를 빼면 실질금리는 연 1.84%가 된다. 올해 1월 CD 실질금리가 0.15%였으니 그만큼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PIX)도 마찬가지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62%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상승률 2.2%를 빼면 실질금리는 1.42%다. 2010년 1월

지수 도입 이후 최고치다. 잔액기준 코픽스의 실질금리도 1.70%로 역대 최대다. 지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의 실질금리는 7월 1.51%로 2009년 11월(1.92%) 이후 가장 높았다. 국고채 3년물 실질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부터 양(+)으로 반전해 11개월간의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마감했다.

문제는 은행 대출 대부분이 CD금리와 코픽스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분기 은행권 전체 대출 1천79조원 가운데 686조원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이중 CD 연동 대출이 324조원, 코픽스 연동 대출이 154조원을 차지한다.

가계대출은 더 심각하다. 5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642조원 가운데 고정금리는 6.7%인 43조원에 불과하다. 가계대출의 93.3%는 CD나 코픽스와 같이 특정금리에 묶여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잔액의 50%가량이 CD 금리인, 20% 이상이 코픽스에 연동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금리의 실질금리가 올라간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연합뉴스



“보험 가입하면 항공 마일리지” LIG손해보험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비례해 일정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비례해 일정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취득세 낮추면 月 주택거래 2.8% ↑

우리銀 부동산연구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할 경우 매월 주택 거래량이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해준 결과 감면 조치 이후 주택 거래량이 2.8%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해줬었다.

홍성민 팀장은 “부동산 대책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증권사 실적 쇼크

거래 급감...4~6월 순익 73% 줄어

증권사의 1분기(4~6월)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유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식거래 대금이 급감한 탓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2개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216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7%(5766억원) 줄었다. 수수료 수익은 1조5120억원으로 29.7% 감소했다. 이중 수탁수수료

(9100억원), 인수·자문수수료(2100억원), 자산관리수수료(460억원)는 각각 37.2%, 14.4%, 56.1% 감소했다. 대내외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주식거래 대금이 줄어들자 수수료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1분기 주식거래 대금은 386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5% 작아졌다. 추가하락 등으로 주식관련 손실도

4120억원이 발생해 작년 동기대비 3747억원 늘었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며 채권관련 이익은 작년 1분기보다 44.6%(4291억원) 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월 말 3.50%에서 6월 말 3.29%로 낮아졌다. 증권사 62곳 중 21곳은 적자를 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651억원의 적자를 냈고 리딩투자증권(167억원), SK증권(60억원), 한화투자증권(51억원), 한화증권(44억원), 교보증권(44억원), 바른레이즈증권(42억원), 맥쿼리증권(38억원), 한맥투자증권(30억원), 토러스투자증권(22억원), 하이투자증권(19억원) 순이었다. 흑자를 낸 곳도 순이익은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은행권 소송 몸살

집값 하락에 아파트계약자-중도금 대출은행 갈등

집값 하락으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가 잇따르자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계약자가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도금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은 27곳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를 차지한다. 이중 잔금대출이 68조원(66.4%)이고 중도금대출이 26조9000억원(26.2%)이다.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

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은 집값이 떨어진 2008년에는 이같은 집단 채무부존재 소송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개 사업장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한 2011년에는 이들 시중은행이 17개 사업장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집단소송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이보다 많다.

올해 상반기에도 10개 사업장 계약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연합뉴스

휴먼스피치 전문교육 : 스피치불안증해소, 발표, 설득, 토론, 프리젠테이션, 협상, 사회진행, 방송토론, 방송연설, 커뮤니케이션스킬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 교육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탈출!! 스피치불안증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커리큘럼

	주요 교육 내용	주요 교육 내용
제 1강 ~제 2강	Orientation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해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Vocal 요소 훈련(목소리요소 트레이닝)
제 3강 ~제 4강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Body-motion(스피치 상황에서의 동작)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실습훈련 스피치불안증 극복훈련
제 5강 ~제 6강	언어적 스피치스킬 메시지구성기법(조리있는 구성법)	Attention skill 시무기법(주목시키는 기법)
제 7강 ~제 8강	논리적 메시지기법 주장(claim)세우기, 이유와 증거제시하기	설득스피치를 위한 Issue와 기법 문제제기를 통한 정정안들기 기법
제 9강 ~제 10강	결론과 마무리 기법 설득적 결론기법, 마무리기법, 결론기법	테마스피치 실습훈련(Full Version) 종합실습훈련과 모니터링(평가제정훈련)
제 11강 ~제 12강	청중분석과 청중대응기법 청중파악, 청중분석, 청중리딩기법	설득의 원리와 설득커뮤니케이션 설득기법을 활용한 설득스피치기법
제 13강 ~제 14강	Interpersonal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훈련	테마스피치 종합실습훈련 Self-monitoring훈련-피드백실습
제 15강	스피치경연대회-3분스피치 수료식-휴먼포럼 구성	휴먼스피치교육은 체계적, 전문적, 실용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 휴먼스피치교육은 원리+기법을 통한 실습모니터링 중심교육을 합니다.
※ 80% 이상 출석한 분들은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급 자격」 응시기회를 드립니다.



著書・論文
•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2007, 5쇄
• 선거전략지침서 2010,
• 선거연설과 그 전략 1998,
• 스피치교육의 과제와 진로(論) 2005,
• 후보자 TV토론에서의 언어적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차이(論) 2004,
• 남북경제협력과 지역기업의 대응방안(論) 1992.

휴먼스피치문화원은 1997년 전국 최초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면접(Interview), 토론(Debate) 연설 및 선거방송토론, 상담과 설득, 협상분야에 체계적, 전문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및 건설탄트를 30여 명 배출함으로써 이 분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탄탄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2. 단순한 표현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불안증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과정 수료시점에는 설득력 있는 스피치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4.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보는 실습이 아니라 계획, 실습, 모니터링, 분석, 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5. 휴먼스피치는 수료이후 휴먼포럼회원으로서 꾸준한 보수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CULTURE CENTER

교육문의 1588-6117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